

2025년 7월 7일(월) 정기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7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부산광역시 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

유 형 : 공모 선정

사진유무 : 사진있음 ☐ 사진없음 ☒

과장	강현영	051-888-4220
팀장	공 석	-
담당자	문경욱	051-888-4196

### 부산시,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2년 연속 3곳 선정… 국비 93억 원 확보

- ◆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 ▲동구 범일1동 ▲부산진구 범천2동 ▲사하구 신평1동 최종 선정
- ◆ 안전·생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업…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33억 원 투입
- ◆ 대상지는 ▲동구, 산복도로 급경사 주거지 ▲부산진구, 절골·미실마을 ▲사하구, 태풍 이재민과 총무동 진개장 철거민 집단이주지

□ 부산시(시장 박형준)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「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(이하 새뜰마을사업)」 공모에 시 사업지 3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9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.

- 「새뜰마을사업」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안전·생활 기반(인프라)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,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.
- ▲안전·위생 등 생활 기반(인프라) 확충 ▲주거환경 개선 ▲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며, 총사업비의 70퍼센트(%)를 국비로 지원한다.
- 올해 공모에는 전국 26개 지자체가 도전해 총 17곳이 선정됐으며, 특·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시가 유일하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3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.

□ 선정된 3곳은 ▲동구 범일1동 ▲부산진구 범천2동 ▲사하구 신평1동으로,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내년(2026년)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33억 원(국비 93, 지방비 40)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- [동구 범일1동]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에 의해 계획 없이 형성된 산복도로 급경사 주거지인 범일1동 1405-1번지 일원이 사업대상지다. ▲재해방지 안전시설 및 위험축대 정비 ▲경사지 골목 정비 및 마을공원 조성 ▲노후 주택 및 빈집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.

- [부산진구 범천2동] 산복도로변에 있는 노후주거지인 범천2동 1129-10번지 절골·미실마을 일원이 사업대상지다. ▲안심마을길 및 방재·공동체(커뮤니티) 마당 조성 ▲경로당 신축 및 소하천 정비 ▲노후주택 및 공·폐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.
- [사하구 신평1동] 태풍 이재민과 충무동 진개장 철거민들의 집단이주지인 신평1동 다대로83번안길 일원이 사업대상지다. ▲안전한 마을안길 조성 및 노후축대 정비 ▲마을회관 및 골목정원 조성, 노후옹벽 경관개선 ▲노후주택 및 공·폐가 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.

□ 한편, 시는 해당 공모사업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26곳이 선정됐으며, 총사업비 1천157억 원(국비 800, 지방비 357)을 투입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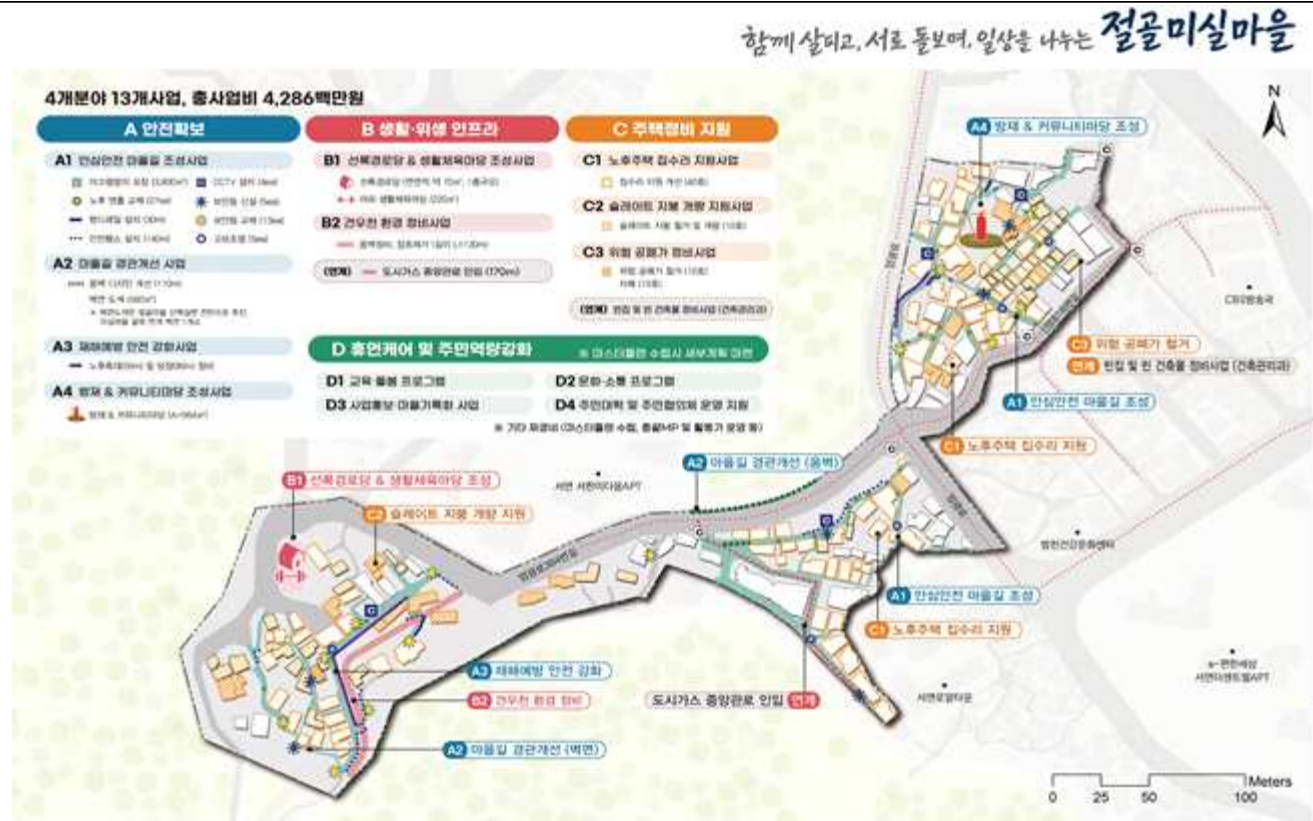
□ 박형준 시장은 “우리 주변엔 아직 경제성장 고도화 과정에서 사회·경제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정주환경이 낙후된 지역이 남아 있고,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” 라며, “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전했다.

# 참고 1

# 사업 구상도



- 동구 범일1동 -



- 부산진구 범천2동 -





## 공모 선정 지역(2015~2026년)

○ 도시 199개소

[illegible]